

## 중국 산둥성의 지역적 특성과 충남도와 교류·협력 방향

박 경 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  
kcpark@cni.re.kr

이 연구는 산둥성의 최근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충남도와 산둥성 간 실질적 교류·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특히 2025년에는 충남도와 산둥성 간 우호교류 30주년을 맞아 양 지역 교류·협력의 기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CONTENTS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산둥성의 기본 개황
3. 산둥성의 주요 정책 현황
4.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요약

- 충남도와 1995년 우호교류 협력을 맺은 산둥성은 현재 중국 내 인구 규모 2위, 경제 규모 3위의 대성(大省)으로 성장
  - 산둥성의 인구 규모는 2023년 기준 1억 223만 명으로 광둥성에 이어 2위이며 인구 규모 1억 이상을 가진 2개 성중 하나
  - 산둥성의 경제 규모(GDP)는 연간 9,069억 위안으로 광둥성, 장쑤성에 이어 3위 차지
- 산둥성은 충남도와 역사, 지리, 경제, 환경 측면 등 여러 방면에서 유사성이 강해 향후 다양한 교류·협력 추진 필요
  - 산둥성은 지리적으로 충남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며 산둥성과 태안반도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 최단 거리로 알려짐
  - 또한 산둥성은 유교문화, 해양산업, 탄소중립 정책 등 충남도와 정책성 유사성이 많아 향후 양 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둥성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충남도와 산둥성 간 6가지 주요 교류·협력 방안 제시
  - 첫째, 충남도와 산둥성 간 정례 교류회의 개최
  - 둘째,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분야 협력 강화
  - 셋째, 산둥성 내 '충남사무소'(칭다오시 내) 설치
  - 넷째, 윤봉길 의사 칭다오 체류지 기념물 설치
  - 다섯째, 유교문화 교류·협력 강화
  - 여섯째, '충남도-산둥성 교류주간' 개최



# 01

##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충남도는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환황해포럼 등을 통해 대외 교류·협력을 강화해 왔고 최근 베이벨리 비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미래 충남의 발전상을 제시
- 충남도가 주도하고 있는 환황해권 경제협력의 핵심지역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충남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산둥성이라고 할 수 있음
  - 산둥성은 약 1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경제력도 중국 내 수위를 차지해 한 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2년, 현 정부의 최초 외교장관 회의를 칭다오에서 개최할 만큼 우리 정부는 산둥성을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중시
- 하지만 충남도는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하고 실질적 경제협력 대상으로도 중요한 산둥성과의 교류·협력은 미흡한 실태
  - 충남도는 1995년에 산둥성과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그동안 행정교류, 문화교류, 관광교류 등을 실시해 왔으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의 성과는 미흡한 상태
- 산둥성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 특히 충남도와 매우 밀접한 만큼 교류·협력 강화 필요
  - 산둥성은 중국 내 인구, 경제, 해양, 문화, 역사 측면에서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충청도가 산둥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충분

##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산둥성의 경제, 사회, 환경,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충청도와 산둥성 간 실질적 교류·협력의 방향 제시
  - － 특히, 2025년에는 충청도와 산둥성 간 우호교류 30주년을 맞아 양 지역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과 세부 사업을 제시

## 02 산둥성의 기본 개황

### 1. 일반 현황

#### 1) 일반 현황<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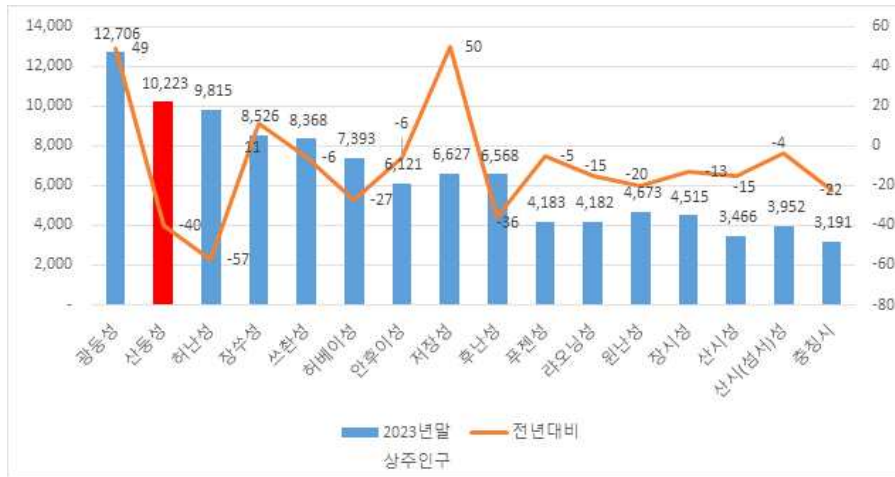
- 산둥성은 중국의 경제, 인구, 농업, 문화의 대성(大省)으로 유교의 발상지
  - 과거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와 노나라의 영토였기 때문에 약칭으로 ‘魯’를 사용
- 산둥성의 면적은 15만 7,965km<sup>2</sup>로 중국 전체의 1.6%, 한국의 1.6배 상당
  - 전체 32개 성시 중 18위 차지
- 인구는 약 1억 223만 명(2023년 기준)으로 중국 전체의 7.3%, 한국의 약 2배 정도
  - 전체 32개 성시 중 2위 차지
- GDP는 9조 2,069억 위안(2023년 기준)이며 1인당 GDP는 90,060위안
  - GDP 규모는 32개 성시 중 3위를 차지

#### 2) 행정 현황

- 성도는 지난(濟南)이며 지급 시가 16개이며, 그중 부성급 시가 2개
  - 부성급 시: 지난(濟南), 칭다오(靑島)

1) 대한민국 주칭다오영사관. 2023.02. 『산둥성 개황』 p.1을 참고해 새롭게 작성





자료: 国家统计局 人口统计

[그림 2] 중국 성비별 인구 현황(2023년 말 상주인구 기준)(단위, 만 명)

## 2) 산둥성 인구 현황

○ 2023년 기준 산둥성은 인구는 1억 122.97만 명으로 전년 대비 0.39% 감소

- 산둥성 내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린이시로 2023년 기준 1,094만 명이었으며 다음으로 칭다오시 1,037.15만 명, 성도인 지난시는 943.67만 명으로 3위를 차지
- 지역별 인구를 보면 린이시의 인구가 가장 많으나 2023년 인구는 전년 대비 0.45% 감소한 반면, 두 번째인 칭다오시는 전년 대비 0.28%가 증가해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칭다오시가 산둥성에서 인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

○ 그 외 우리나라 도시와 비교적 교류가 많은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많은 지역

- 지역별로 보면, 지닝시는 824.05만 명, 옌타이시는 703.22만 명, 타이안시는 534.87만 명, 르자오시는 294.82만 명, 웨이하이시는 291.36만 명 순으로 인구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성급시인 지난시와 칭다오시만 인구 증가 추세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감소 추세에 있어 중국도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 산둥성 및 각 지역 상주인구 현황(2023년)

단위: 만 명, %

순위	지역	인구수	전년대비
전체	산둥성	10122.97	-0.39
1	런이시	1094.38	-0.45
2	<b>칭다오시</b>	<b>1037.15</b>	<b>0.28</b>
3	<b>지난시</b>	<b>943.67</b>	<b>0.23</b>
4	웨이팡시	936.95	-0.51
5	허쩌시	863.55	-0.55
6	지닝시	824.05	-0.60
7	옌타이시	703.22	-0.38
8	랴오청시	585.93	-0.73
9	더저우시	553.63	-0.69
10	타이안시	534.87	-0.97
11	쯔보시	467.40	-0.68
12	빈저우시	390.98	-0.37
13	자오좡시	380.98	-0.52
14	르자오시	294.82	-0.68
15	웨이하이시	291.36	-0.14
16	둥잉시	220.60	-0.39

자료: 國家統計局 人口統計

### 3. 경제 구조

#### 1) 전국 경제 현황

- 산둥성의 경제 규모는 전국 성시 중 3위이며 성장률도 상위 차지
  - 2023년 기준 산둥성의 GDP는 13조 5,673억 위안으로 광둥성, 장쑤성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2024년 상반기에 3위 유지
  - 중국 지역별 2024년 상반기 실질 성장률을 보면, 산둥성은 5.8%로 장쑤성, 후베이성과 같았으며 충칭시 6.1%보다는 낮았지만 전국 성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



[그림 3] 중국 주요 성시 GDP 현황

단위: 억 위안, %

구분	2023년	2024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실질 성장률
광둥성	135,673	65,243	3.9
장쑤성	128,222	63,326	5.8
<b>산둥성</b>	<b>92,069</b>	<b>46,677</b>	<b>5.8</b>
저장성	82,553	40,920	5.6
허난성	59,132	31,233	4.9
쓰촨성	60,133	29,463	5.4
후베이성	55,804	27,346	5.8
푸젠성	54,355	26,380	5.6
후난성	50,013	24,545	4.5
안후이성	47,051	23,967	5.3
상하이시	47,219	22,346	4.8
베이징시	43,761	21,791	5.4
허베이성	43,944	21,510	5.0
장시성	32,200	15,638	4.5
충칭시	30,146	15,138	6.1
윈난성	30,021	14,573	3.5
랴오닝성	30,209	14,547	5.0

자료: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8192301](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8192301)

- 산둥성의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은 39,890위안으로 전국 성시 중 8위 차지
  - 2023년 기준 산둥성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은 39,890위안으로 전국 성시 중 8위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6.20%의 증가 속도를 보임
  - 1인당 가처분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시로 84,834위안이었으며 다음으로 베이징시가 81,752위안임. 다음으로는 저장성, 장쑤성, 텐진시, 광둥성, 푸젠성으로 베이징을 제외하면 모두 연해안 지역으로 나타남

[그림 4] 중국 주요 성시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 현황

단위: 위안, %

구분	2023년	2022년	2023년 증가 속도
상하이시	84,834	79,610	6.56
베이징시	81,752	77,415	5.60
저장성	63,830	60,302	5.85
장쑤성	52,674	49,862	5.64
톈진시	51,271	48,976	4.69
광둥성	49,327	47,065	4.81
푸젠성	45,426	43,118	5.35
<b>산둥성</b>	<b>39,890</b>	<b>37,560</b>	<b>6.20</b>
네이멍구자치구	38,130	35,921	6.15
랴오닝성	37,992	36,089	5.27
충칭시	37,595	35,666	5.41
후난성	35,895	34,036	5.46
후베이성	35,146	32,914	6.78
안후이성	34,893	32,745	6.56
장시성	34,242	32,419	5.62
하이난성	33,192	30,957	7.22
허베이성	32,903	30,867	6.60
쓰촨성	32,514	30,379	5.98

자료: 国家统计局

## 2) 산둥성 경제 현황

### ① GDP 현황

- 2023년 기준 산둥성의 총괄 GDP는 9조 2069.67억 위안이며 전년 대비 6.0% 증가
- 산둥성 지역별 GDP 규모를 보면, 칭다오시가 1조 5760.34억 위안으로 1위를 차지
  - 다음으로 지난시가 1조 2757.34억 위안 2위를, 옌타이시가 1조 162.46억 위안으로 3위를 차지

- 부성급 도시인 칭다오시와 지난시가 경제 규모 면에서도 수위를 다투고 있음
  - 특이한 점은 인구 규모 면에서는 전체 7위인 옌타이시가 경제 규모 면에서는 3위를 차지
  - 항구도시인 옌타이시가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을 이룬 것은 산둥성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로 해석됨.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옌타이시를 칭다오시의 보완 혹은 경쟁 도시로 적극 키운다고 분석이 있음
- 이 같은 배경에는 중국 정부에서 옌타이시, 웨이하이시 등 한국과 가까운 산둥성의 도시들을 한국 경제와의 밀접한 협력 혹은 대응을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의견이 있음

## ② 성장률

- 2023년 기준 산둥성의 지역별 GDP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전년 대비 최고 7.0%, 최저 5.1%로 비교적 고른 성장률을 보임
  - 구체적으로 보면, 둥잉시가 전년 대비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허쩌시가 6.8%, 옌타이시가 6.6%, 지닝시가 6.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빈저우시가 5.0%, 웨이팡시가 5.1%, 쑤보시 5.5%, 웨이하이시가 5.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표 2> 산둥성 및 각 지역 GDP 현황(2023년)

단위: 억 위안, %

순위	지역	GDP총량(억 위안)	전년대비(%)
전체	산둥성	92069.67	6.0
1	칭다오시	15760.34	5.9
2	지난시	12757.4	6.1
3	옌타이시	10162.46	6.6
4	웨이팡시	7606.01	5.1
5	린이시	6105.17	6.3
6	지닝시	5516.47	6.5
7	쑤보시	4561.79	5.5
8	허쩌시	4464.49	6.8

9	둥잉시	3899.06	7.0
10	더저우시	3805.27	6.0
11	웨이하이시	3513.54	5.7
12	타이안시	3323.86	6.4
13	빈저우시	3118.85	5.0
14	랴오청시	2926.36	6.1
15	르자오시	2390.86	5.6
16	자오좡시	2156.74	6.4

## 4. 주요 도시의 특성

### 1) 도시화율

- 2023년 기준 산둥성의 도시화율은 65.53%로 중국 전체 66.16%보다는 약간 낮음
  - 도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칭다오시로 78.30%이며 다음으로 쑤보시 75.66%, 지난시 75.28%, 웨이하이시 72.68%, 둥잉시 72.49% 순으로 나타남
  - 연해안 도시의 도시화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나 옌타이시는 69.2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옌타이시는 최근 도시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인근 평라이시 등 농촌지역을 합병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도시화율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
- 반면, 비교적 내륙 지역에 위치한 도시지역은 낮게 나타남
  - 린이시는 58.16%, 더저우시 56.33%, 랴오청시 55.80%, 허쩌시 53.83%로 낮게 나타남

### 2) 도시등급

- 중국 제일재경신일선성시연구원(第一財經新一線城市研究院)에서는 도시의 중심성, 상업자원밀집도, 미래발전성 등의 지표를 참고해 매년 도시 등급을 발표

- 2023년 도시등급 발표 자료를 보면, 칭다오시가 산둥성에서는 유일하게 1급도시로 선정
  - 그만큼 칭다오시는 산둥성 내에서 경제적 위치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2급도시로는 지난시, 옌타이시, 웨이팡시 등 세 개 도시가 포함
  - 지난시는 산둥성의 성도이자 부성급 도시이며, 옌타이시는 칭다오시 다음으로 발전하는 항구도시
  - 웨이팡시는 산둥성의 북부 발전축의 중심에 위치하며 산둥성 내 GDP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할 만큼 발전하는 도시
- 3급도시로는 쯔보시, 웨이하이시, 둥잉시 등 모두 10개 시가 포함
  - 반면, 르자오시와 빈저우시는 4급도시에 포함됨. 르자오시는 해안도시이고 빈저우시도 어느 정도 발해만을 끼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은 타 지역에 비해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산둥성 및 각 지역 도시화율, 도시등급 현황(2023년)

단위: %

순위	지역	도시화율	도시등급
전체	산둥성	65.53	-
1	칭다오시	78.30	1급도시
2	쯔보시	75.66	3급도시
3	지난시	75.28	2급도시
4	웨이하이시	72.68	3급도시
5	둥잉시	72.49	3급도시
6	옌타이시	69.23	2급도시
8	타이안시	66.45	3급도시
7	웨이팡시	66.12	2급도시
9	르자오시	63.56	4급도시
10	지닝시	63.05	3급도시
11	빈저우시	61.92	4급도시
12	자오좡시	61.73	3급도시
13	런이시	58.16	3급도시
14	더저우시	56.33	3급도시

15	랴오청시	55.80	3급도시
16	허쩌시	53.83	3급도시

자료: 통계국(인구), 第一財經新—線城市研究院(도시등급)

주: 도시등급은 도시의 중심성, 상업자원밀집도, 미래발전성 등의 지표를 참고해 평가

### 3) 살기 좋은 도시

- 중국에서는 매년 살기 좋은 100대 도시를 선정해 발표하는데 산둥성에서는 웨이하이시가 수위를 차지
  - 2023년도 중국 살기 좋은 100대 도시 중 산둥성 웨이하이시는 전국에서 22위, 산둥성 내 1위를 차지



자료: 나무위키(웨이하이시 해안 전경)



자료: 나무위키(웨이하이시의 상징인 幸福門)

[그림 5] 산둥성 내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웨이하이시 전경

- 웨이하이시는 산둥성 동쪽 끝단에 위치하며 우리나라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시임. 2023년 인구 291만 명으로 크기는 않지만 아름다운 해양휴양 도시로 노년에 살기에 가장 쾌적한 도시로 알려져 있음
- 웨이하이시 다음으로는 둥잉시, 칭다오시, 지난시, 쑤보시, 타이안시, 옌타이시 등 순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
  - 산둥성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린이시의 경우 살기 좋은 도시 순에서는 가장 하위를 차지했으며 웨이하이시와 인접한 옌타이시는 7위로 중간 순위를 차지

<표 4> 중국 살기 좋은 100대 도시(산둥성, 2023)

전체 순위(산둥성 순위)	지역
22(1)	웨이하이시
29(2)	둥잉시
36(3)	칭다오시
39(4)	지난시
45(5)	쑤보시
59(6)	타이안시
61(7)	옌타이시
65(8)	빈저우시
67(9)	웨이팡시
79(10)	지닝시
84(11)	더저우시
88(12)	랴오칭시
89(13)	허쩌시
93(14)	린이시

자료: <https://baijiahao.baidu.com/s?id=1795991069089145773&wfr=spider&for=pc>

# 03

## 산둥성의 주요 정책 현황

### 1. 주요 지도자 현황<sup>2)</sup>

#### 1) 현 당서기는 린우(林武)

- 산둥성 린우 당서기는 2022년 12월에 부임했으며 중공 20기 중앙위원
  - 그는 후난성 상탄강철그룹 총경리, 후난성 경제무역위 주임, 지린성 부성장, 산시성 서기 겸 성장 등을 역임하였고, 서기 취임 후 산둥성을 명실상부한 경제대성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2) 현 성장은 저우나이샹(周乃翔)



- 저우나이샹 산둥성 성장은 2021년 10월에 부임했으며 중공 19기 대표
  - 그는 쑤저우, 항저우 등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중심지에서 근무하였으며, 성장 취임 후 산둥성을 ‘신시대 사회주의 현대화 강성(强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
  - ※ 산둥성 관료 조직은 과거 현지인 출신 위주였으나, 최근 중앙정부 또는 타 성·시 관료 출신이 간부로 임명되는 추세

<표 5> 산둥성의 주요 지도자

사진	이름	현직	비고(전직 등)
	린우 (林武)	- 산둥성 당서기 (‘22.12월~) - 중공 20기 중앙위원	- 푸젠성 푸저우시 출신 / 한족 - 후난성 경제무역위에서 공직 시작 - 후난성 상무위원, 지린성

2) 대한민국 주청다오영사관. 2023.02. 『산둥성 개황』, p.2을 참고해 작성



			상무위원, 산시성궐 서기
	저우나이상 (周乃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둥성장(‘21.10 월~)</li> <li>- 중공 19기 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쑤성 이싱(宜兴) 출신 / 한족</li> <li>- 장쑤성 타이저우시에서 공직 시작</li> <li>- 항저우 시장, 장쑤성 여유국장, 장쑤성 쑤저우시 서기, 중국건축그룹 동사장, 산둥성 부성장 등 역임</li> </ul>

자료: 대한민국 주청다오영사관. 2023.02. 『산둥성 개황』, p.2

## 2. 주요 정책 현황

### 1) 주요 국가정책

#### ① 산둥자유무역시험구(FTZ)

○ 이 시험구는 2019년 총면적 119.98km<sup>2</sup>으로 3개 시에 분할 지정

- 즉, 지난은 기술산업, 칭다오는 해양경제, 옌타이는 한중일 협력 분야에 특화되어 분할 지정

#### ② 신구성장동력전환선행구

○ 이 선행구는 2018년 전통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환경·에너지·의료 분야 등에 특화되어 지정되었으며 신산업 도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목표

- 중국은 지난시에 ‘신구 성장동력 전환 선행구(新旧动能转换先行区)’를 기반으로 수소에너지 과학기술 단지(氢能科技园), 수소에너지 산업단지(氢能产业园), 수소에너지 컨벤션 비즈니스구(氢能会展商务区) 등 3곳을 하나로 모은 ‘중국 수소밸리’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제시<sup>3)</sup>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06.26. “산둥, 지난시에 ‘중국 수소밸리’ 건설 추진”. 중국전문가포럼:

### ③ 상하이협력기구(SCO) 지방경제무역협력시범구

- 이 시범구는 2018년 6월 칭다오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지정됐으며 칭다오의 남쪽 자오저우(胶州)에 위치
- \*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어로 상하이합작조직(上海合作組織)으로 표기되며 일대일로 국제협력 플랫폼의 일환으로 2001년 7월에 발족
- 이 기구에는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 참가해 설립됐으며 이후 파키스탄과 인도가 추가



자료: 차이나 비즈&테크 인포메이션(2023.06.17.)  
[그림 6] 산둥성 칭다오에 건립된 중국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무역시범구

### ④ 녹색 저탄소 발전 선행구

- 중국 정부는 2022년 9월 산둥성을 ‘녹색 저탄소 발전 선행구’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것으로 발표<sup>4)</sup>
-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 2060년 중국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2021년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달성 업무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 중
- 산둥성은 중국 3개 성시 가운데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발전, 공업분야의 녹색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https://csf.kiep.go.kr/newsView.es?article\\_id=38723&mid=a20100000000](https://csf.kiep.go.kr/newsView.es?article_id=38723&mid=a20100000000)(검색일: 2024.08.26.)

4) 김주혜. 2023.10.17. “중국 산둥성, ‘녹색 저탄소 발전 선행구’ 구축 추진”. 「중국전문가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온라인자료 참고 정리)

- 산둥성은 2021년 중국 내 지역별 발전량은 3위를 차지했으며, 그 중 화력발전 비중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음. 나머지는 풍력 5.4%, 원자력 3.4%, 태양광 1.4% 차지
- 따라서 중국 국무원은 2022년 9월 「산둥성의 성장동력 전환 심화 및 녹색 저탄소 질적 발전 추진 지원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탄소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것으로 발표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s://www.youtube.com/watch?v=APbH3jhQs6M>)  
[그림 7] 산둥성 '녹색 저탄소 발전 선행구' 지정 안내 동영상

○ 산둥성 '녹색 저탄소 발전 선행구'는 2027년과 2035년 목표를 두고 있으며 주요 정책은 산업구조 전환과 에너지 구조 전환으로 나뉨

<표 6> 산둥성 '녹색 저탄소 발전 선행구' 구축 관련 목표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목표	202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 저탄소 발전 선행구 구축을 추진해 타 지역으로 보급·확산시킬 수 있는 성과 도출</li> <li>- 에너지·산업 구조 최적화: 비화석 에너지 소비 확대, 중점 업종(기업) 에너지 효율 수준 제고 등</li> </ul>
	20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한 후 탄소 배출량을 안정적으로 감축</li> <li>○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한 시스템과 메커니즘 구축</li> </ul>
주요 정책	산업구조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화학공업의 최적화 및 구조조정 가속화</li> <li>-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의 합병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연해지역 산업단지로 생산역량 집적</li> </ul>
	에너지 구조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탄 화력발전을 통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보장하되, 석탄 소비의 증가를 엄격하게 통제</li> <li>○ 비화석 에너지원 대대적 개발</li> <li>- 자체 대규모 풍력·태양광·원자력 발전 추진: 천만kw급 심해 풍력발전기지 건설, 산둥 북부 염전, 서남부 탄광 침하지역 등에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기지 규모화 건설, 산둥 자오둥(膠東) 반도에 원자력 발전 추진(선진형 원자로의 대규모 발전)</li> <li>○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타 지역과의 협력 강화: 해당지역의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기지 건설에 적극 참여, 쓰촨성 룡둥(隴東)-산둥성 간 특고압 송전로 건설 가속화(해당 송전로를 통해 전송되는 전력량 중 재생에너지 50%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 시설의 에너지 구조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칭다오항의 수소에너지 활용 확대, 르자오항 벌크건화물(철광석, 석탄, 인광석 등) 스마트 녹색 시범항 건설, 전기철도 등 중장거리 녹색화물시스템 구축</li> </ul> </li> </ul>
--	--

자료: 김주혜, 2023.10.17. “중국 산둥성, ‘녹색 저탄소 발전 선행구’ 구축 추진”. 「중국전문가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온라인자료 참고 정리)

## 2) 주요 지역정책

### ① 수소에너지 산업발전 추진

- 산둥성은 2020년 6월 「산둥성 수소에너지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20-2030년)」(이하 계획) 제시<sup>5)</sup>
  - 이 계획에서는 수소가스 추출, 수소가스 저장 운반, 수소 충전 인프라 건설,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에너지 보급 응용 등 수소에너지 산업발전의 핵심 부분인 5개 방면에 관한 수소에너지 산업발전 로드맵과 시공도를 제시

### ② 제조업 육성을 위한 3개년 계획 추진<sup>6)</sup>

- 산둥성은 2022년 11월에 「첨단제조업 강성 행동계획(2022~2025)」을 발표
  - 이 계획은 중앙정부의 「중국제조 2025 산둥성 행동강령」과 「14차 5개년 제조강성 건설 계획」의 뒤를 이어 발표된 고강도의 강령적 성격을 띤 문건으로 산둥성의 경제 사회 발전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핵심적 지위와 중요한 역할을 집중적으로 부각

### ③ 한중 FTA를 계기로 한중산업단지 건립 추진

- 2015년 한중 FTA 타결을 전후로 이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둥성 내 4곳(웨이하이, 칭다오, 옌타이, 지난)에서 한중산업단지 건립 추진
  - 한중산업단지를 추진한 4곳 도시 중에서도 특히 웨이하이는 지리적 이점 때문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06.26. “산둥, 수소에너지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중국전문가포럼: [https://csf.kiep.go.kr/newsView.es?article\\_id=38724&mid=a20100000000](https://csf.kiep.go.kr/newsView.es?article_id=38724&mid=a20100000000)(검색일: 2024.08.26.)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1.22. “산둥성, 제조업 육성 위한 3개년 계획 발표”. 중국전문가포럼: [https://csf.kiep.go.kr/newsView.es?article\\_id=48232&mid=a20100000000](https://csf.kiep.go.kr/newsView.es?article_id=48232&mid=a20100000000)(검색일: 2024.08.26.)

에, 칭다오는 경제 규모 및 물류의 이점으로 한중 산업단지 추진에 적극적임  
 - 옌타이 또한 2014년 7월부터 한중산업단지 건설을 본격화하며 한중 경제교류에 적극적임(이상훈·김주혜, 2017)

<표 7> 산둥성 내 한중 산업단지 건설 계획

구분	산업단지 유형	협력 분야
웨이하이	한중FTA 지방경제협력시범구	전자상거래, 관광, 의료, 물류, 헬스케어
칭다오	한중혁신산업단지	자동차, 정보전자, 정밀화학, 금융업, 영화산업, 첨단 헬스의료
옌타이	옌타이 한중산업단지	첨단장비제조, 에너지·환경산업, 금융·보험, 문화, 의약품, 헬스산업
지난	한중 첨단산업 협력시범구	신소재, 서비스무역, 전자기술, 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업

자료: 산업연구원 북경사무소. 2015.06.24. “중국 지방정부 경쟁적으로 한중 산업단지 설립”.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연구원.

### 3. 충청도와 산둥성의 대외교류 현황

#### 1) 지방교류

##### ① 자매 및 우호교류 현황

○ 충청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산둥성과 1995년 10월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그동안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충청도는 1994년 허베이성과 자매결연을 맺은 다음, 이듬해인 1995년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산둥성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
- 충청도는 그동안 산둥성과 행정교류, 문화교류, 관광교류 사업을 진행해 왔음.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시군 차원에서도 산둥성 각 도시와 다양한 교류를 진행해 오
- 충청도는 2025년은 충청도와 산둥성 간 우호교류 3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교류 행사를 준비 중

○ 충청남도 시군별 산둥성과의 교류협력 현황은 다음 <표8>과 같음

- 구체적으로 보면, 태안군은 1997년 4월에 지명이 같은 산둥성 타이안시(泰安市)

와 자매교류 협정을 맺고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있고, 아산시는 2000년 9월에 린이시와 우호교류 협력을 맺고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천안시는 웨이하이시 윈딩구(당시 文登市)와 2002년 11월에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교류를 실시하고 있고, 아산시는 2005년 9월에 칭다오시 라이시시와 웨이하이시, 룡청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교류를 실시하고 있음

○ 당진시는 2007년 4월에 르자오시와 자매교류 협정을 맺고 그동안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

- 특히 당진시와 르자오시는 공무원을 상호파견하는 한편, 르자오시에서 개최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입상자를 당진시가 초대하는 등 실질적 교류협력 활동을 이어옴

<표 8> 충청남도와 산둥성 간 교류협력 현황

충청남도	산둥성	결연일자	교류 형태
충청남도	산둥성	1995-10-31	우호교류
<b>태안군</b>	<b>타이안시</b>	<b>1997-04-23</b>	<b>자매교류</b>
아산시	린이시	2000-09-20	우호교류
<b>홍성군</b>	<b>린이시 이수이현</b>	<b>2002-04-24</b>	<b>자매교류</b>
천안시	웨이하이시 윈딩구	2002-11-15	우호교류
당진시	자오난시	2003-11-12	우호교류
아산시	칭다오시 라이시시	2005-09-13	우호교류
아산시	웨이하이시 룡청시	2005-09-14	우호교류
금산군	칭다오시	2006-02-22	우호교류
금산군	옌타이시	2006-02-22	우호교류
<b>당진시</b>	<b>르자오시</b>	<b>2007-04-24</b>	<b>자매교류</b>
아산시	웨이팡시	2013-07-05	우호교류
논산시	지닝시	2015-05-27	우호교류
금산군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2015-10-02	우호교류
부여군	옌타이시	2015-11-05	우호교류

자료: 전국시도지사협의회\_지방외교\_국제교류현황

## 2) 경제교류

### ① 지역별 수출입 현황

- 산둥성은 중국 내 성시 가운데 수출 규모는 4위, 수입 규모는 6위이며 무역수지 규모는 4위를 차지
  - 2023년 기준 산둥성의 수출금액은 2,842억 달러로 광둥성 7,774억 달러, 저장성 5,112억 달러, 장쑤성 4,817억 달러에 이어 4위를 차지함. 이는 상하이시 2,477억 달러보다 높은 수치
  - 수입 규모를 보면, 산둥성은 1,866억 달러로 베이징시 4,347억 달러, 광둥성 4,080억 달러, 상하이시 3,522억 달러, 장쑤성 2,675억 달러, 저장성 1,897억 달러에 이어 6위를 차지
- 지역별 전체적인 무역수지를 보면, 산둥성은 975억 달러로, 광둥성 3,695억 달러, 저장성 3,215억 달러, 장쑤성 2,141억 달러에 이어 4위 차지
  - 하지만 3위와 4위 간 무역수지 격차가 크고 지역 격차 또한 커서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9> 중국 지역별 수출입 현황(2023)

단위 : 천 달러, %

순위	성(省)명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총계	3,421,739,228.0	-5.1	2,563,585,472.0	-5.6	858,153,755.0
1	광둥성	777,434,396.0	-2.5	407,963,185.0	-8.8	369,471,211.0
2	저장성	511,203,833.0	-0.9	189,675,268.0	0.9	321,528,565.0
3	장쑤성	481,673,271.0	-8.3	267,544,913.0	-9.5	214,128,359.0
4	<b>산둥성</b>	<b>284,198,780.0</b>	<b>-8.3</b>	<b>186,648,809.0</b>	<b>-3.5</b>	<b>97,549,971.0</b>
5	상하이시	247,693,923.0	-3.2	352,177,645.0	-4.9	-104,483,722.0
6	푸젠성	169,551,990.0	-7.0	113,770,672.0	-1.8	55,781,318.0
7	베이징시	85,791,727.0	-2.2	434,720,298.0	-4.9	-348,928,571.0
8	쓰촨성	87,463,407.0	-6.5	50,660,969.0	-12.8	36,802,437.0
9	안후이성	75,534,680.0	5.6	40,217,583.0	-4.4	35,317,097.0
10	충칭시	69,538,974.0	-12.3	33,662,439.0	-23.1	35,876,534.0

11	후베이성	62,241,867.0	-1.7	30,070,789.0	1.8	32,171,078.0
12	광시좡족자치구	55,069,638.0	-0.9	48,718,695.0	11.9	6,350,943.0
13	허난성	75,330,367.0	-4.3	40,151,499.0	-18.5	35,178,868.0
14	신좡위구르자치구	43,695,391.0	39.4	7,803,499.0	39.9	35,891,892.0
15	톈진시	52,451,570.0	-8.2	62,827,773.0	-9.6	-10,376,203.0
16	허베이성	51,946,638.0	1.3	32,825,170.0	0.1	19,121,467.0
17	랴오닝성	50,439,911.0	-6.3	58,562,336.0	-9.4	-8,122,425.0
18	후난성	57,898,997.0	-27.1	31,346,511.0	8.2	26,552,486.0
19	산시성(陝西省)	37,533,252.0	-17.2	20,220,088.0	-26.7	17,313,164.0
20	장시성	60,999,791.0	-21.0	25,512,393.0	3.8	35,487,397.0

자료: 한국무역협회\_아시아 해외무역통계\_중국 성별

## 2) 산둥성 무역 현황

### ① 수출 현황

- 2023년 기준 산둥성의 수출액은 2,8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감소
  - 산둥성은 2016년 이후 줄곧 수출액이 증가해 2022년 3,099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2,842억 달러로 감소로 전환
  - 2020년~2022년 코로나19 국면에서 산둥성의 수출액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 국면이 끝난 후인 2023년에 산둥성의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로 전환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시간차를 두고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음

### ② 수입 현황

- 2023년 기준 산둥성의 수입액은 1,8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 감소
  - 산둥성의 수입금액은 연도별로 편차가 크나 2020년 이후 줄곧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2년 1,933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에는 1,866억 달러로 하락 추세로 전환

### ③ 무역수지 현황

- 2023년 기준 산둥성의 무역수지는 9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3% 감소



- 산동성은 2019년 이후 줄곧 무역수지가 증가해 2022년 1,165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975억 달러로 감소로 전환
-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에도 무역수지는 줄곧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코로나19 봉쇄의 후폭풍이 시간차를 두고 나타났음을 알 수 있음

<표 10> 산동성 무역 현황

단위 : 천 달러, %

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3년	284,198,780	-8.3	186,648,809	-3.5	97,549,971
2022년	309,848,926	13.2	193,323,168	7.9	116,525,758
2021년	273,669,867	43.9	179,100,804	37.2	94,569,063
2020년	190,234,644	17.8	130,532,742	-1.6	59,701,902
2019년	161,493,646	-6.9	132,594,780	-30.0	28,898,866
2018년	173,429,810	10.1	189,377,966	21.1	-15,948,156
2017년	157,490,129	8.0	156,444,553	22.2	1,045,576
2016년	145,825,760	-2.0	128,070,229	-2.6	17,755,531
2015년	148,841,639	-4.1	131,441,038	-24.6	17,400,601
2014년	155,172,762	9.3	174,274,104	0.7	-19,101,342

자료: 한국무역협회\_아시아 해외무역통계\_중국 성별\_산동성 무역현황

## 2) 충남도 대중국 무역 현황

### ① 수출 현황

- 2023년 기준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액은 1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5% 감소
  -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액은 2014년 295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줄곧 등락을 보이다 2021년 269.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
  - 최근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액의 급속한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 속 중앙정부의 대미 편중 외교의 결과로 판단

## ② 수입 현황

- 2023년 기준 충남도의 대중국 수입액은 4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감소
  - 충남도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49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3년 476억 달러로 하락세로 전환

## ③ 무역수지 현황

- 2023년 기준 충남도 대중국 무역수지는 124억 달러로 전년 198억 달러 대비 37.3% 감소
  - 충남도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2년 222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
  -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최근 정부의 대미 편중 외교로 인한 결과로 판단

<표 11> 충청남도 대중국 무역 현황

단위 : 천 달러, %

년월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3년	17,158,331	-30.5	4,756,324	-3.2	12,402,007
2022년	24,699,160	-8.4	4,914,771	3.7	19,784,389
2021년	26,963,231	20.3	4,738,928	27.6	22,224,303
2020년	22,418,118	-4.4	3,712,670	-1.1	18,705,448
2019년	23,457,572	-11.9	3,752,795	-5.8	19,704,777
2018년	26,615,828	10.1	3,985,833	17.3	22,629,995
2017년	24,171,535	-0.1	3,399,133	26.1	20,772,402
2016년	24,200,796	-17.9	2,694,762	0.7	21,506,033
2015년	29,471,481	1.5	2,676,453	-4.6	26,795,028
2014년	29,021,688	-5.2	2,806,930	2.0	26,214,758

자료: 한국무역협회\_국내통계\_지자체 수출입

### 3) 사회문화교류

#### ① 유교문화 교류

- 충남도는 충청유학(기호유학)의 본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남유학에 비해 학술적 성과도 저조하고 유교를 활용한 지역발전도 더딘 상태
  - 기호유학은 충남도 논산지역을 중심으로 17세기 이후 발전한 기호지역의 성리학을 말함.(네이버 지식백과)
  - 영남유학의 본산인 경북 안동의 경우 유교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학술사업과 관광사업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명소가 되었음
  - 이에 반해 역사적 연원과 학문적 깊이 측면에서 결코 영남유학에 뒤지지 않는 기호유학의 본산인 논산은 그렇지 못한 상태
- 최근 충남도는 충청유교의 위상 제고와 유교를 통한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 충남도는 2022년 10월 논산시 노성면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개원하고 K-유교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충청유교의 위상 제고와 지역문화, 지역발전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그림 8]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2022.10.01)



[그림 9] K-유교국제포럼  
(2023.10.24.)

- 또한 충남도는 유교의 본산인 산둥성과 학술교류 등 여러 활동을 진행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2017년부터 충청유교국제포럼<sup>7)</sup>을 개최하며 중국 산

7) 충청유교국제포럼은 2022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개원하면서 K-유교국제포럼으로 바뀜

- 동성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교류 활동을 진행
- 또한 충남도는 유교의 본산인 산둥성정부 등이 취푸(曲阜)시에서 개최하는 최대 유교문화행사인 니산(尼山)세계문명포럼 등에 참여하며 양 지역 간 유교문화 교류를 이어오고 있음
- 산둥성정부는 공자의 고향 취푸시에 공자테마파크인 니산성경(尼山聖境)을 조성해 유교와 공자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사업을 진행



자료: 대전일보(2023.10.03.)  
[그림 10] 제9회 니산세계문명포럼



자료: 블로그 엔타이페리(2024.07.30.)  
[그림 11] 공자테마파크인 취푸시 니산성경

## ② 관광 교류

- 충남도는 1995년 10월 우호교류를 시작했으며 2006년에는 관광부서 간 협약을 맺고 관광 팸투어, 국제행사의 상호 참가 등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
- 충남도는 올해 산둥성정부 문화관광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충남도가 추진하는 ‘2025~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설명하고 양 지역의 문화관광교류 사업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아울러 충남도는 2025년은 충남도와 산둥성 간 우호교류 3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교류 행사를 계획하고 있음



자료: 동양일보(2024.07.12.)  
[그림 12] 충남도와 산둥성 현지 기관 간 관광홍보 업무 협약체결

## 04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1. 시사점

#### 1) 인구 대성(大省)인 산둥성

- 2023년 기준 산둥성의 인구는 1억 223만 명으로 중국 내 32개 성시 중 1억 2,706만 명인 광둥성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규모가 큼
- 산둥성이 충남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하면서도 인구가 많다는 것은 향후 충남도가 관광객 유치 등의 사업에서 산둥성에 대한 집중 공략의 필요성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충남도는 2025-26년을 ‘충남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산둥성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공략할 필요성이 있음

#### 2) 중국 상반부 경제중심지 산둥성

- 2023년 기준 산둥성의 GDP는 92,069억 위안으로 중국 내에서 광둥성, 장쑤성 다음으로 3위를 차지
  - 산둥성 다음으로는 저장성, 허난성, 쓰촨성, 후베이성, 푸젠성, 후난성 등임. 산둥성은 중국 황하 북부지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지역임을 알 수 있음
-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최근 5.8%를 차지해 전국 성시 중

2위를 차지해 산둥성 경제가 빠르게 발전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충남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산둥성은 기본적으로 한국과의 경제교류(문화, 인적 교류 포함)를 적극 희망하기 때문에 향후 충남도에서는 산둥성과 전방위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 녹색 저탄소 발전 선행구인 산둥성

- 산둥성은 2022년 9월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내 최초로 ‘녹색 저탄소 발전 선행구’로 지정되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행
- 충남도 또한 ‘탄소중립특별자치도’를 선포하고 탄소배출 감축과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산둥성과 다양한 교류·협력 추진 필요
  -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도 또한 일찍이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특히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와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개최를 통해 국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산둥성과도 적극적인 교류·협력 추진 필요

### 4) 유교문화의 본산인 산둥성

- 산둥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유교문화의 본산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유교문화를 선도
  - 특히 매년 국제적 유교문화축제라고 할 수 있는 니산세계문명포럼 등 학술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자의 고향인 취푸(曲阜)에 공자테마파크 등을 조성해 관광산업 진흥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충남도와 산둥성은 유교를 매개로 한 역사문화 교류·협력 강화 필요
  - 충남도는 2022년 충청유교의 본산인 논산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등을 통

해 충청유교의 부흥과 위상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둥성과의 유교문화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 정책 제언

### 1) 충청도와 산둥성 지방정부 간 정례 교류회의 개최

#### ① 기본 방향

- 충청도와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산둥성 교류지역과 정기적인 교류회의 개최

#### ② 사업 내용

- 현재 충청도는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충청도는 금년 4월 중국 내 13개 지방정부를 초대해 7회째 교류회의를 개최



[그림 13] 제7회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최

- 충청도는 <충남-중국 지방정부 교류회의>의 일환 혹은 별도로 충청도 15개 시군과 공동으로 <충남도-산둥성 지방정부 교류회의>(약칭 ‘忠山會議’)를 2년에 1회 개최

- 이 교류회에서는 충청도가 산둥성정부 관계자를 초대하고, 충청도 15개 시군은 자신의 지역과 교류협정(우호·자매결연 등)을 맺고 있는 지역의 지도자를 초대해 공동으로 교류 행사를 진행

### ③ 기대 효과

- 충청도와 산둥성 간 보다 밀도있는 교류·협력 분위기 형성
- 충청도와 15개 시군 간 효율적 대중국 교류·협력 사업 추진



## 2)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

### ① 기본 방향

- 충남도와 산둥성 간 탄소중립 및 녹색 발전에 상호 정책 교류·협력 강화

### ② 사업 내용

- 충남도는 2022년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였고 산둥성은 중앙정부에서 ‘녹색 저탄소 발전 실행구’로 지정된 만큼 양 지역 간 정책 교류 추진
  - 충남도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절반에 가까운 29기가 위치할 정도로 국내에서 탄소배출 가장 많은 지역
  - 산둥성 또한 중국 내 32개 성시 중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녹색 저탄소 발전 실행구’로 지정되어 탄소배출 감축을 적극 추진
  - 따라서 탄소중립을 매개로 한 양 지역 간 정책 교류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충남도가 주관하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관련 국제행사 시 산둥성과의 교류 활동 적극 확대
  - 충남도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매년 ‘충남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와 ‘충남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충남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에는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담’도 유치해 각국 지방정부 및 NGO, 기업인 등이 참여해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위해 논의할 예정
- 충남도와 산둥성 간 탄소중립 정책 현장의 상호 방문 및 학습
  - 충남도는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인 지역에 대체 에너지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동안 보령에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수소가스 터빈 시험연구센터를 유치했으며 보령과 태안에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조성 중
  - 산둥성 또한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산둥성 내륙과 해안 및 해상에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 중
  - 따라서 지리적, 정책적으로 유사한 양 지역이 탄소중립 정책을 중심으로 상호

학습하고 효율적 추진을 모색하는 교류 활동 추진



자료: 더팩트(2023.10.05.)  
[그림 14]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



자료: 충청남도 보도자료  
[그림 15] 충남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 ③ 기대 효과

- 충남도와 산동성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교류 강화
- 양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상호 학습을 통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

### 3) 산둥성 내 ‘충남사무소’ 설치

#### ① 기본 방향

- 중국의 주요 경제중심지이자 충남도와 경제, 문화, 역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산둥성 내 ‘충남사무소’ 설치
  - 단기간에 설치가 어려울 경우 중장기적인 목표 하에 추진

#### ② 사업 내용

- 충남도는 현재 상하이에 사무소 재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개소 예정
  - 상하이 내 충남사무소가 다시 개설될 경우,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은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
- 중국은 단일 경제권으로 설정하기에는 그 규모와 형태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상하이 충남사무소 설치 외 산둥성 내(예, 칭다오) 제2 충남사무소 설치
  - 현재 대구시의 경우 상하이사무소 외 쓰촨성 청두시에 대구사무소 설치 추진 중<sup>8)</sup>이며 전북도 또한 기존의 상하이사무소 외 칭다오시에 제2사무소 설치를 추진 중
  - 현재 경기, 경남, 부산, 대전 등 전국 4개 시도는 상하이와 칭다오 등지에 중국 사무소 2곳을 설치 운영 중
  - 사무실 설치 장소는 산둥성 내 경제가 가장 발전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칭다오시가 적합함. 특히 칭다오시는 중국 정부로부터 상하이협력기구(SCO) 지방경제무역시범구로 지정된 상태
- 산둥성 내 충남도 중국사무소가 설치될 경우 상하이사무소와 역할 분담
  - 충남도 상하이사무소는 주로 중국 남방지역의 경제, 문화 교류를 담당하고, 산둥성 사무소(예, 칭다오사무소)는 중국 북방지역의 경제, 문화, 역사 교류를 담당

---

8) 대구신문(2024.04.29.), <中 청두에 ‘대구 사무소’ 개설 추진>: <https://v.daum.net/v/zqJS2hj49W>(검색일: 2024.08.23.)



자료: 뉴스 경남(2024.07.03.)

[그림 16] 경상남도 산둥사무소의 교류 활동

○ 산둥성 내 충남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충남도 숙원사업, 관광사업, 국제행사 등에 많은 역할 가능

- 충남도는 매년 백제문화제를 개최하며, 2025-2026 충남방문의 해, 2026 태안 국제치유박람회,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
- 또한 충남도는 현재 서산국제공항 개설, 서산시(대산항)-산둥성(웨이하이항 또는 룡옌항) 간 여객선 개통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중국, 특히 산둥성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

○ 산둥성 내 충남사무소는 충남도뿐만 아니라 도 산하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가능

- 산둥성 내 충남사무소는 충남도를 중심으로 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TP 등이 협력해 개설하는 방안도 가능

### ③ 기대 효과

○ 충남도와 산둥성 간 안정적, 지속적 교류·협력 체계 구축

○ 서산국제공항, 서산대산항-산둥성(웨이하이항 또는 룡옌항) 간 여객선 취항 준비, 국제행사 교류 확대, 관광객 유치 확대 등

#### 4) 윤봉길 의사 칭다오 체류지 기념물 설치

##### ① 기본 방향

- 충남도와 산둥성 간 우호교류 30년을 기념하여 윤봉길 의사 체류지에 윤봉길 의사 기념물 설치 및 제막식 거행
  - 현재 윤봉길 의사가 1930~1931년 사이 1년 동안 체류한 세탁소의 위치가 고증된 상태

##### ② 사업 내용

- 칭다오시는 충남 출신의 독립영웅 매한 윤봉길 의사가 1년간 체류한 역사적인 장소
  - 충남 예산 출신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윤봉길 의사는 독립운동의 근거지 마련을 위해 1930년 말 칭다오에 도착한 후 이곳에서 약 1년을 체류한 후 이듬해 거사 지역인 상하이로 떠남
- 우리나라와 중국은 일제의 침략으로 많은 고통과 시련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기억하고 기리는 활동 필요
- 따라서 충남도는 윤봉길기념사업회, 독립운동 유관단체, 주중한국대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등과 함께 윤봉길 의사가 체류한 지역 혹은 인근 공원에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기념물(표지석, 기념비, 흉상, 동상 등) 설치
  - 보도에 따르면, 주칭다오총영사관에서 윤봉길 의사 체류지에 표지석 설치를 추진할 것<sup>9)</sup>이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윤봉길 의사가 체류한 칭다오의 세탁소 터는 현재 중국농업은행이 들어서 있으며 칭다오 동북쪽 구시가지에서 랴오닝로(遼寧路)와 린지로(臨濟路)가 만나는 지점에 있음<sup>10)</sup>. 정확한 주소는 靑島市 遼寧路155號甲임

---

9) 연합뉴스(2022.03.01.), <칭다오영사관 “윤봉길 의사 체류지 표지석 설치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1074551083?input=1179m>.(검색일: 2024.08.22.)

10) 동아일보(2014.03.01.), <윤봉길 의거 前h 머문 칭다오 세탁소 자리 찾았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40224/61149639/1>(검색일: 2024.08.22.)

- 충남도와 산둥성 간 우호교류 30주년 행사 시 칭다오시 내 윤봉길 의사 체류지에 윤봉길 의사 칭다오 체류 기념물 제막식 거행

○ 칭다오시에 윤봉길 의사 기념물이 설치될 경우 향후 칭다오시는 상하이시와 연계해 독립운동역사 학습관광 루트로 활용

- 윤봉길 의사가 중국 내에서 체류한 칭다오시와 상하이시를 연계해 ‘매현루트’(또는 ‘윤봉길루트’, ‘봉길루트’ 등)를 만들고 이를 독립운동 학습관광 상품으로 개발  
- 특히 충남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현루트’ 역사탐방(수학여행의 일환도 가능)을 실시하고 이를 확대



자료: 동아일보(2014.03.01.)

[그림 17] 윤봉길 의사가 1년간 체류한 곳으로 알려진 칭다오의 현재 장소

### ③ 기대 효과

- 항일역사 의식 공유를 통한 충남도와 산둥성 간 교류·협력 강화
- 항일 영웅 윤봉길 의사를 통해 중국 내 충청남도과 예산군 홍보 확대

## 5) 충남도-산둥성 간 유교문화 교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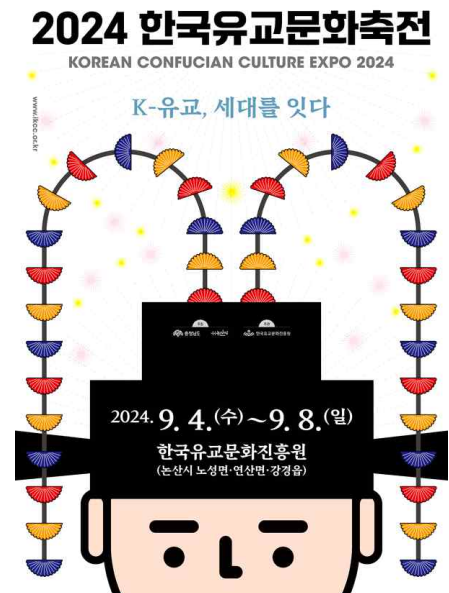
### ① 기본 방향

- 유교 문화의 본 고장인 산둥성과 유교 관련 학술, 인력, 관광 교류 확대를 통해 충남도 유교문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충남은 영남 유교보다 역사적 기원과 학술적 깊이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내외적인 활동 저조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한 상태

### ② 사업 내용

- 충남도는 그동안 산둥성과 유교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양 지역은 주로 학술대회 참석 위주의 교류 활동에 그치고 있는 상태
  - 충남도는 매년 K-유교포럼(2024년부터는 한국유교문화축전)을 개최하고, 산둥성은 매년 니산(尼山)세계문명포럼·니산유학대화회 개최 등을 통해 양 지역 간 교류를 이어옴
  - 하지만 현재까지 인적, 물적 등 여러 가지 여건 부족으로 주로 학술대회 참석 위주의 교류 활동에 그침
- 충남도는 지역 기반의 유교문화 진흥을 위해 2022년 10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개원한 만큼 향후 학술, 관광, 인적 교류 등 산둥성과 유교를 매개로 한 다양한 교류 활동 추진
  - 구체적인 교류 활동으로는 ①학술교류 참석 범위 확대, ②충남도 유교유적지 정비 및 관광교류 확대, ③인적 교류 등임
  - 특히, 충남도가 유교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유교에 대한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유교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산둥성의 유교 관련 정책과 사업 학습 필요
  - 또한 충남의 유교문화를 중국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중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중국 유교 전문가 초빙을 통한 연수 활동 등 양 지역 간 인적 교류 실시

- 충남도는 그동안 매년 개최했던 K-유교국제포럼을 2024년부터는 한국유교문화축전으로 확대 개편한 만큼 충남도와 산동성 간 교류 활동 확대 기대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올해 처음으로 9월 4일부터 8일까지 'K-유교, 세대를 잇다'라는 주제로 한국유교문화축전을 개최
- 그동안 주로 학술교류에 그쳤던 K-유교국제포럼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동반한 축전으로 확대 개편한 만큼 양 지역 간 교류 또한 다양하길 기대



[그림 18] 2024 한국유교문화축전  
홍보포스터

### ③ 기대 효과

- 충청유교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대중국 협력 네트워크 강화
- 한국과 중국의 국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를 통한 다양한 교류 활동 전개



## 6) ‘충남도-산둥성 교류주간’ 개최

### ① 기본 방향

- 충남도와 산둥성 간 상호 이해 및 교류 증진

### ② 사업 내용

- 충남도와 산둥성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두 지역이 상호 이해하는 활동 필요
  - 양 지역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역사적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대 지역에 대한 몰이해로 교류·협력 활동은 미흡한 상태
- 2025년 충남도와 산둥성 간 우호교류 30주년, 2025-26 ‘충남 방문의 해’ 등을 맞아 충남도와 산둥성에서 각각 상대 지역에 대한 교류주간 행사 개최
  - 충남도와 산둥성 간 상호 협약을 통해 상대 정부에서 교류주년을 개최할 경우 협력토록 함
  - 충남도가 ‘충남도-산둥성 교류주간’을 개최할 경우 산둥성정부의 협력 요청뿐만 아니라 주한중국대사관, 주한중국문화원, 주한중국관광국, 한중우호협회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통해 개최
  - 또한, 산둥성정부에서 ‘산둥성-충남도 교류주간’을 개최할 경우 충남도의 지원뿐만 아니라 주상하이 충남사무소, 주칭다오한국영사관, 산둥성 내 한인회, 기업 등과 협력해 개최
- 충남도-산둥성 교류주間は 가급한 양 지역 축제 등 문화행사와 연계해 추진
  - 양 지역의 교류주간 행사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의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 지역의 우수 축제와 연계해 추진
  - 예를 들어 충남에서 충남도-산둥성 교류주년을 개최할 경우 충남의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백제문화제, 보령머드축제, 천안홍타령춤축제 등과 연계해 추진
  - 산둥성에서 개최할 경우 칭다오국제맥주축제, 린이시의 랑야축제, 허쩌시의 모란축

## 제 등과 연계해 추진



자료: 주청다오영사관(2021.07.20.)  
[그림 19] 한-산둥교류주간



자료: 걸쳐제주(2024.07.19.)  
[그림 20] 제주-산둥 교류주간

- 충남도-산둥성 교류주간 행사를 매년 개최가 어려울 경우 우호교류 5배수가 되는 해에 정기적으로 개최
  - 즉, 충남도-산둥성 간 우호교류 30주년, 35주년, 40주년 등 5배수가 되는 해에 교류주간을 개최하며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별 교류주간을 개최
  - 교류구간에는 문화행사, 체육행사, 음식(술 포함)행사, 전시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③ 기대 효과

- 충남도-산둥성 간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
- 정기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충남도-산둥성 간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

## 참고자료 및 사이트

김주혜. 2023.10.17. “중국 산둥성, ‘녹색 저탄소 발전 선행구’ 구축 추진”. 「중국 전문가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주청다오영사관. 2023.02. 『산둥성 개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06.26. “산둥, 지난시에 ‘중국 수소밸리’ 건설 추진”. 「중국전문가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1.22. “산둥성, 제조업 육성 위한 3개년 계획 발표”. 중 「중국전문가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성준 외. 2023. 중국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산업연구원 북경사무소. 2015.06.24. “중국 지방정부 경쟁적으로 한중 산업단지 설립”. 「중국산업경제 브리프」. 산업연구원.

이상훈·김주혜. 2017.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산둥성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장민. 2023.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_지방외교\_국제교류현황:

<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do?menuNo=200080>

주청다오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cn-qingdao-zh/index.do>

한국무역협회\_국내통계\_지자체 수출입:

<https://stat.kita.net/stat/kts/prod/ProdWholeList.screen>

한국무역협회\_아시아 해외무역통계:

<https://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

KOTRA\_청다오무역관:

<https://www.kotra.or.kr/qingdao/index.do>

中國国家统计局: [www.stats.gov.cn](http://www.stats.gov.cn).

山東省政府: [www.shandong.gov.cn](http://www.shandong.gov.cn).